



일상생활 속의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어 봅시다

_____학년 _____반

이름 _____

1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

엄마

이번 주말에는 우리나라의 명소인 경주로 가족 여행을 가 볼까?

우와! 신난다! 그런데 엄마, 명소가 뭐예요?



지훈



엄마

아, 명소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을 의미한단다. 명소는 한자이지.

엄마, 한자에서 온 말보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말을 쓰고 싶어요.



지희



엄마

우리 지희의 한글 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. 그럼 '명소'를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?

음,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니깐, '이름난 곳' 어때요?



지훈



지희

와, 역시 내 동생은 똑똑하다니까! 이제 '명소'라는 한자에서 온 말 대신 '이름난 곳'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해야겠어요!

- (1) 지훈이네 가족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나요?
- (2) 지희는 어떤 말을 우리말로 바꾸고 싶어 하나요?
- (3) 지희와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나요?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



2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바꿔 쓰면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.



3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바꿔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





6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놀이를 해 봅시다.

놀이서 공부해요

감사

가면극

기억

간식

잔반

답문간

▶ **정답**

뒤로 5칸

문제 없이 통과!

문제 없이 통과!

가격

대하

명소

대쪽

**선생님과
가위바위보**
 이긴 사람 통과,
 진 사람은 뒤로 3칸

- ① 지우개나 작은 물건으로 말을 정하기
- ② 주사위 숫자가 나온 만큼 자신의 말을 이동!
- ③ 이동한 칸의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바르게 바꿔 말하기!
- ④ 정답을 맞혔을 경우 그 자리에 있고 틀렸을 경우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!
- ⑤ 한 바퀴 돌아 출발까지 오면 승리!